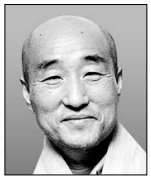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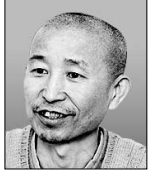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 위촉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일면 스님은 2월 25일 운영위원 위촉식을 여는 한편 같은 날 남양주 불암사에서 직원 불교연수 및 수계식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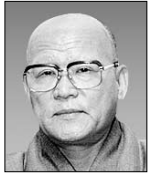
8교구 본말사 신년교례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운 스님은 2월 27일 설법전에서 조계종 8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했다.



해국 스님 초청 천도법회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3월 7일 오전 9시 대적광전에서 제주 남국선원장 해국 스님을 법사로 1029일 천도제 10번째 법회를 봉행한다.



생명살림 위한 죽문즉설법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생명살림불사를 위한 죽문 즉설법회를 봉행한다. 021733-1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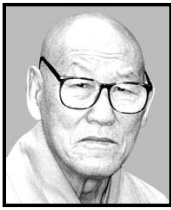
'바르게 사는 길' 법문 동국대 경주 정각원장 도업 스님은 3월 9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바르게 사는 길' 주제 법회를 봉행한다. 054770-2016



우리나라 상징 염서 무료배포 사단법인 법사사 김기욱 이사장은 3·1절 86주년을 맞아 태극기와 무궁화, 독도를 담은 그림염서 11만부를 인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02859-8999

형성 봉복사 회주 태허 스님 입적

강원도 형성 봉복사 회주인 태허당 종영 스님(사진)이 2월 22일 새벽 5시 열반했다. 영결식은 24일 원주불교장으로 거행했다. 태허 스님은 1916년 공주에서 태어나 36년 공주 감사에서 호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 공주 마곡사 전문 강원 대학교와 일본 오사카 관서 고등부기학교를 졸업했다. 부여 무량사 주지, 원주 구룡사 주지를 역임, 95년부터 봉복사에서 주석해왔다.



화엄종 정희수 법사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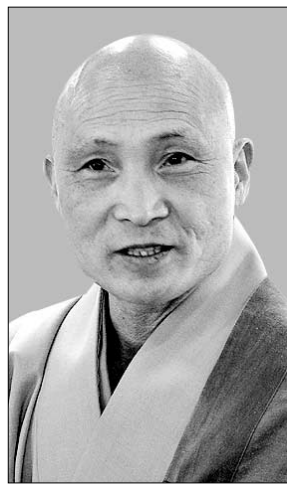
화엄종 종회의장과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정희수 법사(사진)가 2월 20일 타계했다. 85세. 영결식은 22일 봉행했다. 정 법사는 1978년 승려 및 군법사, 불교학자 양성을 위한 화엄종 승가장학재단을 설립해 1천 3백여 명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선수행으로 행복 찾는 길 제시할 것”

‘간화선 대중화 위한 설선대법회’ 여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한국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인 범어사에서 선 수행 진작을 위해 용맹정진해 오신 한국의 대표적인 선승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값진 기회이자 한국선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시 없는 법석이 될 것입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법회인 ‘범어사 설선대법회’를 준비 중인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사진)은 설선대법회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형상이 없는 선(禪)을 선답게 설명(講)하는 법회라는 의미의 설선대법회는 ‘문없는 문을 열다’는 주제로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다.

스님은 “한국 불교 말살 시도가 극심하던 시절, 당시 주지였던 성월 스님의 옹골은 수행력에 탄복한 일본 사이트 총통이 1913년 선찰대본산으로 지정할 만큼 한국 선을 대표하는 곳이 범어사”라며 “선찰대본산의 위상과 역할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이번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선은 어느 특정 종교나 스님들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21세기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종교를 조형할 수행법”이

선의 대중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많은 동참을

라며 “내면의 여유와 지혜를 갖춘 성숙된 인간을 만들어가는 수행법인 선의 대중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선대법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스님은 “선사상은 이심전심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선승들이 입을 열어 사자후를 하는 것은 보다 많은 대중들이 수행의 문에 들어서고 그 수행을 통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맛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스님들의 법문에 이어지는 질의시간을 통한 의문점 해결과 선 수행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참선실수 시간. “선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선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대성 스님은 “이번에 법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범어사에서 수행했던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 그 인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대중법문에 임하는 스님이 많은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법석”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은 “평생을 선방에서 수행한 스님들이 열어 보이는 선의 세계 초대한다”며 “지혜의 문이 열리고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이번 법회를 통해 수행을 통한 행복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성 스님은 “경허 스님, 용성 스님, 한운은 스님, 동산 스님, 탄허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승들이 수행했던 한국제일의 선 도량에서 선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권미희 기자

금강산 신계사 도감 100일 맞은 제정 스님

“하루 천명 이상 관람...역사 설명때 보람”

“하루하루 수천여명의 관광객을 상대로 신계사를 소개하고 복원불사의 의미를 알리는 일이 너무 뿌듯하다.” 2004년 11월 11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현장에 발을 내딛던 이후 숨 돌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100일(2월 20일)에 대한 신계사 불사 도감 제정 스님의 회고다.



제정 스님(사진)은 지난해 11월 2일 신계사 도감(都監)에 임명되자마자 신계사로 건너가 대웅전 낙성식을 지냈다. 곧이어 시작된 겨울 방학, 육로관광이 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을 맞았다.

“신계사 탐방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참배객들과 긴 시간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스님은 “그렇지만 역사의 현장인 신계사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다”고 한다. 속소인 온정각에서 신계사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아침 8시에 신계사로 출발해 대웅전 문을 열면 아침 예불을 하기 무섭게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일과는 오후 4시 전후로 마무리된다. 스님은 “특히 올해는 만세루와 요사채, 신신각 등의 불사가 진행된다”며 “불사가 마무리되는 2007년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금과 같이 국내외의 정치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남북한 불자들이 더 마음을 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발원해줬으면 한다”며 2월 23일 금강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유철주 기자

동대 경주병원 영가천도제



동국대 경주병원(원장 이규춘)은 2월 18일 병원 약사전에서 경주 함철사 조실 우룡 스님을 초청법사로 2004년 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355명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다. 이날 우룡 스님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초불교사암엔 신년하례법회 및 경로잔치



서울 서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춘광, 관문사 주지)는 2월 21일 서초 구민회관에서 1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 및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춘광 스님은 “서초구민 가정에 희망과 발전을 기원한다”며 “불우이웃에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언론사불자연합회장 취임식



제3대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이 취임식이 여의도포교원원장 현진 스님과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4일 서울 여의도포교원에서 열렸다.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이연재 MBC 보도전략팀장은 “언론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우 스님 첫 석사, 현관 스님 수석

중앙승가대 24일 졸업식

중앙승가대는 2월 24일 열린 200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속가 나이 환갑의 정우 스님이 이 대학 첫 석사로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승랍 20년차의 비구니 선재 현관 스님이 67명 졸업생 가운데 전체수석을 차지했다. <무문관>의 주석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한 대학원 석공의 정우 스님은 지칠 줄 모르는 만화열로 젊은 학인들과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우 스님은 13살인 1958년 수미사에서 광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 인천 영산정사를 장건하

는 등 청소년 포교에 매진했다. 80년대 중반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정우 스님은 “한문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역경을 전공하긴 했지만, 논문준비를 위해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쉽지않은 일이었다”며 늦은 공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님의 논문은 무문관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번역본의 대조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고문 번역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은 불교계에서 드문 일이다. 올 2학기에는 새로 개설되는 중앙승가대 박사과정에 도전한다. 전체수석을 차지한 현관 스님은 86년 동민 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흥륜사에서 3년 결사,



정우 스님



현관 스님

재방 선원에서 10여 년간 안거했다. 어느 날 ‘좌복 위에 앉아 있는 것만 이 다가 아니다’는 생각에 2001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학문을 하면서도 이것이 수행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떨치지 않았다”는 현관 스님은 “종생을 위한 ‘실천불교’를 화두삼아 평생 정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학기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에 매진한다. 조용수 기자

공 대한불교 수미산문(須彌山門) 조동정종(曹洞正宗) 재중창(再重創) 선포문 告

재 중 창 의 중 대 선 언 !

1. 고려 태조께서 창건한 광조사에서 이엄선사께서 조동종 목조선종을 진작, 수미산문을 참수한 바 1989년 본 법통 계승, 대한불교조동종 중창 이래
2. 1994년 중국 소림사, 소회선사의 조동정종 법맥을 사법, 약진 번창한 바, 범해스님의 능숙한 행정능력의 업적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3. 그후 행정 무능력과 사리사욕의 집단이 집권하게 되자 종정의 독선이 시작되었으니 총무원장이 종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에도 종정이 마음대로 먼저 지명 후 종회에서는 사후 동의하는 불법이 감행됨에 따라 4대와 5대는 총무원장과 이에 적극 동조자 등 3인을 재입종 불가의 최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설상가상격으로
4. 2004년 5월 3일자로 총무원장 기획실장 종정등이 극비속에 체탈자 1명을 재입종 시킨 중대비리가 적발된 바 문책에 위기를 느낀 그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불순한자들을 규합하여
5. 범해스님 제자 중에서 총무원 부원장, 감찰원장, 울원장, 3개 교구총무원장과 종회의원 등 다수가 위기에 처한 총무원 일선에서 사심없이 중단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총무원사 건립 조성금 6천만원 중 2천7백여만원이 범해문도 중앙간부들이 거출한 유공자들임에도
6. 부원장을 총무원장 잔여기간, 직무대행 임명한 종정은 부당한 사유로 트집잡으며 사무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이 일을 강력 항의한바 급한 나머지 부당한 회의소집으로 3인에게 체탈이라는 불장난을 저지르는 불법자, 부패자들과는 결별하고 별첨, 탈종선언문과 같이 참신한 중도들이 수미산문 조동정종이라는 재중창을 선포하오니 정의의 불심을 가진 불자들은 적극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49년 2월 15일

大韓佛敎 須彌山門 曹洞正宗 (대한불교 수미산문 조동정종)

강범해(덕천) · 김일광(행군) · 김정림(행정) · 허지덕(덕송)

총무원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 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2960